

프랑스 대선과 국민참여경선의 효과: 2016년 우파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오창룡(서울시립대학교)

1. 서론
2. 프랑스의 국민참여경선 도입
 - 1) 국민참여경선 관련 기존 국내연구
 - 2)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의 역사
3. 2016년 우파 국민참여경선 사례
 - 1) ‘우파 및 중도 국민참여경선’의 도입
 - 2) 국민적 관심과 사전예측 실패
 - 3) 프랑스와 파용의 지지층 분석
4. 결론: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의 성과와 한계

1. 서론

- ▷ 2017년 4월 23일 및 5월 7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부상이 주목받았음. 또한 올랑드가 사회당 경선 참여를 포기하여 2007년 대통령 임기 5년제 도입 이후 연속으로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게 됐음. 각종 여론조사는 공화당 출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진단했었음.
- ▷ 전진(République en Marche)당의 마크롱이 당선됐으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당선되는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음. 최근 설문에 따르면 6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전진당 310-330석, 공화당이 140-160석, 사회당이 25-30석, 공산당 및 불굴의 프랑스당(France insoumise)이 25-30석, 국민전선이 10-15석을 얻는 것으로 예측됨.¹⁾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한 이래로 중도우파 정당과 사회당이 양당 체제를 형성해 왔으나, 2017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3당 체제로 재편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현재는 양대 정당의 쇠퇴가 두드러지고 있음.
- ▷ 그런데 이번 프랑스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우파 정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수용했다는 점이었음.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은 1995년 대선에 앞서 사회당이 최초로 도입했으며,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은 2011년 사회당-중도좌파 대선 후보자 선출 방식으로 도입됐음. 중도우파 정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으며, 2016년 11월에 대선 후보자 선출에 사회당과 마찬가지로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을 수용했음. 각종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들이 중도우파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기 때문에, 우파의 국민참여경선 승리가 실질적인 대선 승리를 의미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1) Opinionway. 2017. "Intentions de vote au premier tour." *Les Echos*(May 25).

큰 관심을 받았음. 2016년 8월 설문에 따르면, “우파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 54%가 긍정 응답했으며, 24%만이 부정 응답했음.²⁾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결과적으로 틀렸으며, 나아가 우파 경선 직전인 11월 18일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사도 프랑수아 피용의 경선 1위를 예측하지 못했음. 영향력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브렉시트 및 트럼프 당선과 유사한 여론조사 실패 현상이 프랑스에서도 재등장했음.

- ▷ 우파 국민참여경선 결과의 예측 실패가 공화당 후보의 대선 결선투표 진출 실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우파의 국민참여경선의 도입과 전개 과정, 경선결과 예측 실패의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중도우파 지지자들의 이념지형 변화도 추론할 것임.

2. 프랑스의 국민참여경선 도입

1) 국민참여경선 관련 기존 국내연구

- ▷ 국민참여경선과 관련된 국내연구로 김종갑(2007), 김형준(2010), 정만희(2015), 이정진·민태은(2015), 박찬표(2016), 성치훈·진영재(2016) 등이 있음.
- ▷ 기존 연구들은 국민참여경선의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의 한국적 수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참여경선 제도의 일반적인 장점과 문제점이 언급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국민참여경선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문제점
▪ 유권자 자발적 참여 유도/ 참여민주주의 ▪ 공천과정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극복 ▪ 정당 지지기반 확대(진성당원 소수이므로) ▪ 불리한 선거에서 흥행 수단	▪ 조직으로서의 정당 약화/ 당심 왜곡 ▪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 ▪ 정당 책임성 약화 ▪ 선거비용 증가 ▪ 정치신인에게 불리 ▪ 포퓰리즘 등장 ▪ 조직적 동원 선거 ▪ 투표율이 낮을 경우 흥행실패

2)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의 역사

- ▷ 1990년대까지 미국식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은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제도와 정당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간주됐음. 1994년 법학자 베델(Georges Vedel)은 “국민참여경선

2) TNS Sofres. 2016. “Primaires de la droite et du Centre.” *LCI, RTL, Le Figaro* (August 22-25).

을 프랑스가 도입하는 것은 반추동물에게 비프스테이크를 삼키게 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참여경선이 프랑스에 어울리지 않고, 정당을 예측할 수 없는 분쟁과 소송에 빠뜨릴 것이라 경고했음(Lefebvre and Treille 2016, 11).

- ▷ 사회당은 1995년부터 경선 제도를 도입함. 1995년 대선에서는 당원만이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폐쇄형 경선을 도입하여 조스팽을 선출했으며, 2002년에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좌파 후보가 경쟁하여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함.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역시 당원만이 참여하는 경선을 도입했으나, 당비를 20유로로 할인하여 참여를 유도했음. 2011년 사회당은 사르코지를 이길 수 있는 단일 후보 선출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함.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투표소에 방문하여 1유로를 내고 좌파 가치를 지지하는 서명을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Duhamel 2016, 57). 결과적으로 유권자 2백 86만 명이 경선에 참여하여 대중 동원에 성공했으며, 올랑드는 56.38%의 지지를 받아 후보로 선출됨. 국민참여경선으로 사회당은 당내 분열과 리더십 위기, 스트로스 칸 스캔들(2011년 5월) 등을 극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됨(Treille 2016, 59-60)

- ▷ 2016년 1월 11일에는 다니엘 방콩디(Daniel Cohn-Bendit),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미셸 비비오르카(Michel Wieviorka) 등의 학자, 작가, 언론인 11명이 리베라 시옹에 ‘좌파 및 생태주의 경선을 위한 선언(Manifeste pour la primaire des gauches et des écologistes)’을 발표함.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국민전선이 대권을 잡는 것은 하나의 재앙이며, 공화당의 재집권 역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확신은 다음과 같다. 좌파 및 생태주의 경선은, 대선에서 각각의 세력을 대표하는 하나의 후보를 배출하여,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발전적이고 박애적인 기획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Libération. 2011/1/11)

- ▷ 프랑스 우파 정치세력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좌파의 국민참여경선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은 국민참여경선 도입이 프랑스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며,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에게도 적합한 현대적 절차라고 긍정함. 에두아르 발라뒤르(Edouard Balladur) 전 총리는 “국민참여경선은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가 성공한 이유이다. 3백만 명의 선거인단이 승리의 강력한 발판이었다.”고 평가했음. 우파 지도자들이 당내 경선 도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한 장-프랑수아 코페(Jean-François Copé)가 고립되는 분위기가 형성됨(Lefebvre 2016, 71).
- ▷ 우파의 국민참여경선 도입에는 국민전선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음. 1990년대 중도우파 정당 내에서도 경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전례가 있었는데, 우파에서 다수의 후보가 대선 1차투표에서 경쟁하는 경우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음. 마찬가지로 사회당-공화당-국민전선의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파-중도 단일 후

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 대선 1차투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음. 뒤아멜(Olivier Duhamel)은 양당 중심의 정치가 쇠퇴하고, 마린 르펜이 부상한 결과로 국민참여경선이 보편화된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함(Duhamel 2016, 65).

3. 2016년 우파 국민참여경선 사례

1) ‘우파 및 중도 국민참여경선’의 도입

- ▷ 2016년 공화당 주도로 ‘우파 및 중도 국민참여경선(La primaire ouverte de la droite et du centre)’이 추진됐으나, 중도정당인 민주독립연맹(UDI: 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및 민주운동(Modem: Mouvement démocrate)은 경선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함(Vernon 2016). 결과적으로 공화당(LR: Les Républicains), 기독교민주당(PCD: Parti chrétien-démocrate), 자영업자·농민 중앙당(CNIP: Centre national des indépendants et paysans) 3당이 참여하는 경선이 됨. 입후보 자격은 250인 이상의 선출직 추천을 받아 2,500명 이상의 지지자 서명을 받는 것이었으며, 선거인단은 참가비로 투표 당 2유로를 지급하고, 우파 공화국 가치를 지지한다는 문구에 서명하여 자격을 취득함.³⁾ 2016년 11월 20일 1차 투표, 2016년 11월 27일 결선투표가 전국 10,229개 투표소에서 진행됨.
- ▷ 알랭 쥐페(Alain Juppé),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나탈리 코쉬스코 모리제(Nathalie Kosciusko-Morizet), 장 프랑수아 코페(Jean-François Copé), 장 프레데릭 프와송(Jean-Frédéric Poisson) 총 7명이 출마함.
 - ▶ 알랭 쥐페(Alain Juppé): 1946년생으로 후보자 중 가장 고령임. 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직을 거쳐 시락 대통령 재임기간 중 총리로 임명됨. 2001년부터 보르도 시장을 맡고 있음.
 - ▶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2002년 내무부 장관 취임. 2007-2012년 대통령. 2014년부터 공화당 대표 역임.
 - ▶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사르코지 정권에서 유럽문제 국무장관, 농업부 장관을 역임함.
 - ▶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사르코지 정권에서 5년간 총리 역임. 사회노동연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역임.
 - ▶ 나탈리 코쉬스코 모리제(Nathalie Kosciusko-Morizet): 1973년생이며, 유일한 여성 후보. 대중운동연합(UMP) 및 공화당 부대표(2014-2015), 환경지속발전교통주거부 장관, 환경정부 장관, 롱쥬모(Longjumeau) 시장 역임.
 - ▶ 장 프랑수아 코페(Jean-François Copé). 대중운동연합(UMP) 대표(2012-2014), 모(Meaux) 시장, 재정담당장관, 내무담당장관 등을 역임.
 - ▶ 장 프레데릭 프와송(Jean-Frédéric Poisson): 기독교민주당(PCD) 대표이며, 이블린(Yvelines) 지역 국회의원.

3) <http://www.primaire2016.org> (검색일 2017/5/29).

표 2. 우파 경선 및 대선 1차투표 참여의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우파 경선 참여의사자	대선 1차투표 참여의사자
나이		
18-34	14	22
35-49	16	26
50-64	27	27
65 이상	43	25
직업		
농업, 상업	9	7
간부, 전문직	13	13
중간관리직	9	15
노동자	15	25
은퇴	50	36
무직	4	4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	30
고졸	20	21
대졸	27	31
석사 이상	23	18
재산수준		
없음	10	13
낮음	26	34
중간	24	27
높음	4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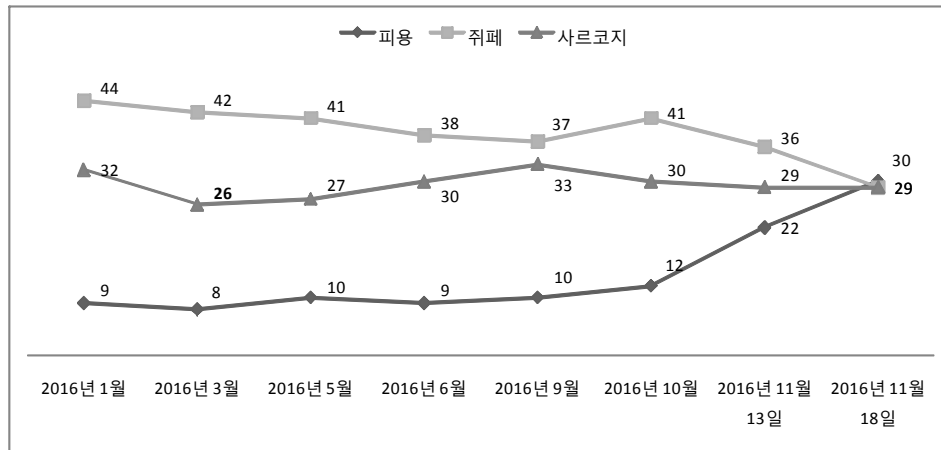
출처: Jérôme Jaffré, “Les corps électoral déformé de la primaire de la droite.” L'enquête électorale français: comprendre 2017. La note #11. Cevipof(Feb. 2016).

- ▷ 우파 국민참여경선의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은퇴자일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65세 이상의 유권자인 경우 대선 참여 의사는 25%에 불과한 반면, 43%가 우파 경선 참여 의사를 보임.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50%가 은퇴자였으며, 40%가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극우정당 집권에 대한 경계, 사회당 실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우파 국민참여경선이 대선의 결정적인 국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그러나 연령과 재산 수준에서 편향된 선거인단이 구성될 경우,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Jaffré 2017, 8).

2) 국민적 관심과 사전예측 실패

- ▷ 우파 국민참여경선 참여의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알랭 쥐페 전 총리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지속됐었으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를 추격하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었음. 쥐페의 지지율은 2016년 44%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락했으나 3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유지한 반면, 사르코지는 2016년 9월 선두와의 지지율 격차를 4%까지 줄였으나 선거 한 달 전 선두와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10%이상 벌어짐.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브뤼노 르 메르와 함께 3-4위 후보군을 형성했으며, 결선투표 진출을 예상한 여론조사는 극히 드물었음.

그림 1. 우파 후보 지지율 변화



출처: Ipsos. 2016. “La primaire de la droite et du centre : intentions de vote.” *Le Monde*(Nov. 18).

표 3. 우파 국민참여경선 선거 결과

후보		득표율(%)	득표수
	프랑수아 피용	44.1	1,890,266
	알랭 뉘페	28.6	1,224,855
	니콜라 사르코지	20.7	886,137
	나탈리 코쉬스코 모리제	2.6	109,655
	브뤼노 르 메르	2.4	102,168
	장 프레데릭 브와송	1.4	62,346
	장 프랑수아 코페	0.3	12,787
		무효	9,883
		총 투표자 수	4,298,097

출처: <https://www.resultats.primaire2016.org/premiertour/index.html#/total> (검색일: 2017/5/29)

- ▷ 우파 국민참여경선에는 4백 3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참여하여 대중적 흥행 면에서 크게 성공함.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프랑수아 피용이 44.1%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크게 승리함. 사전 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했던 알랭 뉘페는 28.6%, 니콜라 사르코지는 20.7%의 지지를 받았음. 4,404,812명이 참가한 결선투표에서 프랑수아 피용은 66.5%(2,919,874표)를 득표하여, 33.5%(1,471,898표) 득표율을 기록한 알랭 뉘페를 이기고 우파 대선 후보로 선출됨.⁴⁾

▷ 사전 여론조사에서 크게 벗어난 선거결과에 대해 i) 역선택의 가능성, ii) 여론조사의 한계, iii) TV 토론의 영향 등의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음.

▶ 역선택의 가능성: 우파 경선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던 피용이 승리한 원인으로 비-우파성향 유권자들의 역선택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음. 그러나 좌파 및 극우 유권자들의 우파 경선 참여는 2016년 11월까지 약 20% 수준으로 예측됐었음. 좌파 성향 유권자는 사르코지 대(對) 마린 르펜의 결선투표 행을 우려하여 알랭 쥐페를 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극우 성향 유권자는 사르코지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역선택으로 피용이 당선됐다는 추론을 하기 힘들.

표 4. 우파 국민참여경선 타당 지지자 참여 의사

지지 성향	2016년 3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좌파	13.1	10.0	10.8	11.4	10.8	10.1
우파	76.0	81.2	76.3	78.9	79.3	77.7
국민전선	10.8	8.9	12.9	9.7	9.9	12.2

출처: Foucault, Martial. 2016. “Les électeurs ‘infiltrés’ peuvent-ils menacer le résultat de la primaire?” L'enquête électorale français: comprendre 2017. La note #27. Cevipof.

표 5. 우파 국민참여경선 후보자별 지지층 정치 성향 (2016년 11월)

	알랭 쥐페	니콜라 사르코지	브뤼노 르 메르	프랑수아 피용
타당 지지자 제외 (공화당+중도)	34.2	31.1	6.7	23.9
공화당 지지자	26.8	38.4	6.1	25.8
좌파정당 지지자	68.7	1.9	4.4	12.4
국민전선 지지자	24.5	35.8	9.6	18.1
좌파정당 지지자 제외	33.0	31.7	7.0	23.2
국민전선 지지자 제외	37.6	28.2	6.5	22.7

출처: Foucault, Martial. 2016. “Les électeurs ‘infiltrés’ peuvent-ils menacer le résultat de la primaire?” L'enquête électorale français: comprendre 2017. La note #27. Cevipof.

▶ 설문조사의 한계: 4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의 규모 자체가 설문조사 기관의 예측을 벗어났음. 선거 직전 피용 지지율 1위를 확인한 Ipsos-르몽드 지의 설문 경우도 세 후보 간 근소한 차이의 경합을 예측했을 뿐이며, 사르코지 지지율이 20%로 나올 것을 예상한 설문조사는 존재하지 않았음(Sénecat 2016).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미리 지적되어 왔음. 2유로를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서

4) <https://resultats.primaire2016.org/#/total> (검색일: 2017/5/29)

실제 선거인단을 표본으로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유의미한 규모의 하위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일반 설문조사보다 10-20배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 해야 함. 또한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특징이 고르게 분포된 표본을 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Léchenet 2016).

- ▶ TV 토론의 영향: 2016년 11월 17일 제3차 TV 토론 직후 가장 설득력 있는 토론을 진행한 후보에 대한 설문에서 피용 33%, 쥐페 32%, 사르코지 18%의 지지를 얻음. 우파 및 중도정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할 때 피용 39%, 쥐페 25%, 사르코지 26%의 지지를 확인함. 이는 경선 실제 결과에 가까운 결과였음(Franceinfo 2016). 피용은 “여론조사와 미디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계산하지 말고, 결선투표에 진출시킬 후보를 고르지 말고, 당신의 신념에 따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3차 TV토론에서 중대한 주제를 논하고 있으니 후보자들 말을 끊지 말라며 사회자를 비판한 장면이 주목받음. 피용은 후보자 토론을 쇼(spectacle)로 생각하지 말라며 사회자를 후보들의 공적으로 돌렸음(Jdd 2016).

3) 프랑스와 피용의 지지층 분석

- ▷ 선거 결과의 의외성 및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피용의 경선 승리에 반영된 중도우파 유권자들의 이념 및 가치 지향 변화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6에 따르면 피용 지지자들 중 각 51% 및 53%가 치안 및 정체성 문제에서 국가권위의 확대를 강하게 지지했으며, 타 후보 지지자의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7은 각 후보지지자들의 가치 지향을 개념화하여 비교한 설문 결과인데, 피용 지지자들은 안보, 질서, 권위 등의 가치를 타 후보 지지자들보다 더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표 6. 국가권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⁵⁾

	알랭 쥐페	니콜라 사르코지	브뤼노 르 메르	프랑수아 피용
치안통제 지수	42	45	55	51
안보 지수	53	56	63	55
정체성 지수	34	49	50	53
표본 수	1088	682	238	210

출처: Rouban, Luc. 2016. “Le retour de l'autorité.” L'enquête électorale française: comprendre 2017. La note #10. Cevipof.(Feb.)

5)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약 2만 명 대상으로 국가권위(l'autorité de l'Etat)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 응답자별로 치안, 안보, 정체성 항목 별로 각각 3개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개수를 지수로 전환함. i) 치안통제 지수(indice régalien): 경찰력 재정 확대, 범죄자 형벌 강화, 의회 및 선거와 무관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 ii) 안보 지수(indice sécuritaire): 군대 재정 확대, 정보기관 재정 확대, 국경통제 재정 확대 필요. iii) 정체성 지수(indice identitaire): 외국인 입국허가 축소, 난민 수용 축소, 불법이민자 추방 확대 필요. 표1은 각 항목별 3개 질문 모두를 긍정한 응답자 비율임.

표 7. 우파 경선후보 지지자의 가치 지향 설문

	알랭 쥐페	니콜라 사르코지	브뤼노 르 메르	프랑수아 피용
자유	89	83	75	77
정의	84	75	81	78
안보	82	81	80	83
평등	77	63	63	58
라이시테	66	52	64	57
연대	73	54	54	57
질서	76	78	78	78
우애	76	62	59	62
권위	64	69	71	71
다양성	42	30	29	34

출처: Perrineau, Pascal. 2016. “Les primaires à droite: Le poids des sensibilité, le choc des personnalités.” L'enquête électorale français: comprendre 2017. La note #21. Cevipof.

▷ 또한 피용은 공화당 지지자 중 카톨릭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른 후보들보다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남. 2016년 12월 설문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이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카톨릭 신자(catholiques pratiquants) 중 59%가 피용을, 27%가 사르코지를, 11%가 쥐페를 지지했으며, 카톨릭 냉담자(catholiques non pratiquants)의 경우 48%가 피용을, 28%가 사르코지를, 21%가 쥐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피용의 친-카톨릭적 공약이 사후적으로 주목받음. 피용은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해왔음. 피용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보전을 주요한 정치과제로 제시했음. “나는 모든 공공정책의 중심에 가족을 복원시킬 것이다. 나에게 가족은 하나의 가치이지 재정적 변수가 아니며, 무모한 사회적 실험 주제는 더욱 아니다.” 피용은 반(反) 이슬람적인 입장도 분명히 함. 『이슬람 전체주의를 이겨내기(*Vaincre le totalitarisme islamique*)』라는 책에서 “프랑스에서 종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뿐이다.”고 주장함. 또한 라이시테 원칙을 강화하는 조치들에 반대했는데, 국가와 무슬림 간의 갈등 속에서 카톨릭 신자들까지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고 봄(Fourque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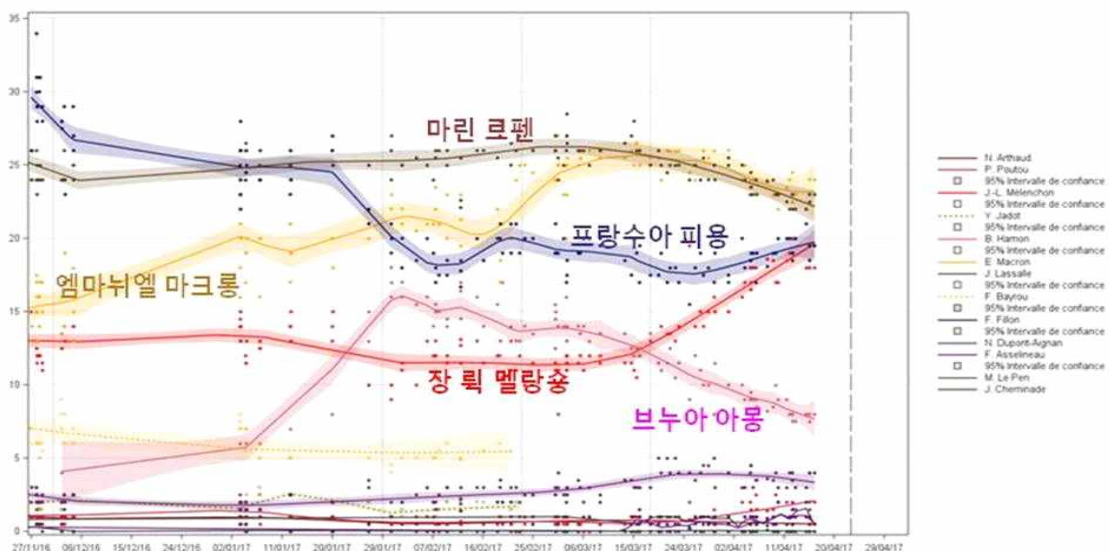
▷ 피용의 경선 승리는 한편으로 우파 성향 유권자들이 평등, 연대, 다양성, 라이시테 등의 가치보다 가족, 권위, 안보 등의 보수적인 이념 지향을 표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4. 결론: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의 성과와 한계

▷ 2016년 도입한 ‘우파 및 중도 국민참여경선’은 정당 민주화 확대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4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성공했음.

- ▷ 프랑스의 국민참여경선 제도 수용의 특수성이 존재함.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이 정당 역할을 쇠퇴하게 만들 것이라는 반발은 크지 않았음. 오히려 프랑스 정치 시스템에서 국민참여경선 도입이 일반화되는 경우, 정당 외부 출신 후보자가 대선에서 주목받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므로 정당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평가가 있었음 (Duhamel 2016, 79-80).
- ▷ 결선투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당 국민전선의 부상으로 기존 양대 정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았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특징임.
- ▷ 국민참여경선 제도의 도입은 사회당 및 공화당이 결선투표로 직행하기 위한 쇄신 시도였으나, 역설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한 두 양대 정당은 결선투표 진출에 모두 실패했음. 완전개방형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화당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사르코지, 우파 전체의 고른 지지를 받았던 쥐페가 후보로 선출되었다면 선거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임.
- ▷ 국민참여경선의 사전 예측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프랑스에서의 제도 정착에 있어 주요한 장애점이 될 것으로 보임. 기존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군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던 후보가 등장한 상황에서, 정당이 아닌 인물중심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스캔들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남. 피용은 2017년 1월 배우자 불법취업 등의 각종 스캔들 이후 지지율 급락을 겪었음. 공교롭게도 피용 지지율 하락에 정비례하여 마크롱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음(그림 2 참고).

그림 2. 프랑스 대선 지지율 변동(2016.11-2017.4)



참고문헌

- 김형준. 2010.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비교민주주의 연구』 6(2).
- 정만희. 2015.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동아법학』 69.
- 김종갑. 2007.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 『사회과학연구』 15(2).
- 성치훈, 진영재. 2016. “한국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적실성과 보완점: ‘제도’와 ‘유권자 문화’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49.
- 박찬표. 2016. “국민참여경선제의 제도 차이의 발생 배경에 대한 연구.” 『미래정치연구』 6(1).
- 이정진. 민태은. 2015. “개방형 경선과 여성대표성” 『정치정보연구』 18(3)
- Bazin, François. 2015. *Les lois de la primaire. Celles d'hier, celles de demain*. Fondapol.
- Duhamel, Olivier. 2016. *Les primaires pour les Nuls*. Edition First.
- Fourquet, Jérôme. 2016. Les électors confessionnels à la primaire de la droite: des choix tranchés. *Ifop Focus* 145.
- Franceinfo. 2016. “Primaire à droite : François Fillon grand vainqueur du dernier débat télévisé, selon deux sondages”(Nov. 18). http://www.francetvinfo.fr/politique/les-republicains/primaires-de-la-droite/primaires-a-droite-francois-fillon-grand-vainqueur-du-dernier-debat-televisé-selon-deux-sondages_1926671.html (검색일: 2016/5/29).
- Haegel, Florence. 2015. “La primaire à l'UMP : genèse et enjeux.” *Pouvoirs* Vol.154, No. 3.
- Jdd. 2016. “Primaire de la droite : revivez le troisième débat.”(Nov. 17) <http://www.lejdd.fr/Politique/Primaire-de-la-droite-suivez-en-direct-le-troisieme-debat-825472> (검색일: 2016/5/29).
- Léchenet, Alexandre. 2016. “Primaire droite : tous les sondages.” *Libération* (May 30) <http://www.liberation.fr/apps/2016/05/sondages-primaires-droite/all> (검색일: 2016/5/29)
- Lefebvre, Rémi, and Eric Treille. 2016. “Vers une primairisation de la vie politique français.” Rémi Lefebvre dir. *Les primaires ouvertes en France : Adoption, codification, mobilis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 Lefebvre, Rémi. 2015. “Les primaires : triomphe de la démocratie d'opinion?” *Pouvoirs* Vol.154, No. 3.
- Lefebvre, Rémi. 2016. “Les primaires à droite: Processus d'adoption et transformations du jeu partisan.” Rémi Lefebvre dir. *Les primaires ouvertes en France : Adoption, codification, mobilis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 Opinionway. 2017. "Intentions de vote au premier tour." *Les Echos*(May 25).
- Sénécat, Adrien. 2016. "Les résultats de la primaire soulignent (encore) les limites des sondages" *Le Monde* (Nov. 21)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6/11/21/les-resultats-de-la-primaire-soulignent-encore-les-limites-des-sondages_5035269_4355770.html (검색일: 2016/5/29).
- TNS Sofres. 2016. "Primaire de la droite et du Centre." LCI, RTL, Le Figaro (Aug. 22-25).
- Treille, Eric. 2016. "La fabrication partisane des primaires socialistes ou la codification d'une nouvelle règle du jeu électoral." Rémi Lefebvre dir. *Les primaires ouvertes en France : Adoption, codification, mobilis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 Vernon, Michel. 2016. "Primaire de la droite et du centre: mais où est le centre?" *LCI*. (Sept. 14). <http://www.lci.fr/politique/primaire-de-la-droite-et-du-centre-mais-ou-est-le-centre-2002979.html> (검색일: 2016/5/29).

<http://www.primaire2016.org>